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 앱 ‘클릭’ 한번에 갈아탄다

연말부터 770조 주담대·200조 전세대출 시장 ‘금리 경쟁’ 예고 19개 플랫폼·32개 금융사 참여...주택·오피스텔 대출 대상 제외

이르면 연말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갈아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대면 상담을 통해야만 가능했던 대출 갈아타기가 비대면으로 손쉽게 가능해지고, 낮은 금리를 쫓아 은행을 바꾸는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770조 원 주담대 시장에 ‘금리 경쟁’ 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그동안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해오던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프라 확대 대상은 많은 금융 소비자가 이용하는 아파트 주담대(신규 구입 자금·생활안정자금 모

두 포함)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이다.

현재 주담대나 전세대출을 갈아타려면 여러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대면 상담을 거쳐야 했다. 온라인 대환대출 시스템이 가동되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 대출 조건을 손쉽게 비교해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지난 6월 기준 주담대와 전세대출 잔액은 970조 원(주담대 770조원·전세대출 200조원) 수준이다. 아파트 주담대 규모는 따로 분류하고 있지 않지만, 주요 시중은행 주담대의 70% 정도가 아파트 대상인 것을 고려하면 약 500조~550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 단독 주택 등의 경우 실시간 시세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대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파트의 경우 KB부동산 시세 등을 통해 최신 시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전세대출 시장의 경우 대환대출 경쟁이 도입되는 것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다.

주담대 기준 19개 대출 비교 플랫폼과 32개 금융회사가, 전세대출은 16개 플랫폼과 22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사실상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주요 은행사, 보험사, 대형 캐피탈사 등은 모두 참여하는 구조다.

금융회사들은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다른 금융회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금리 인하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결제원이 구축하는 대출 이동중계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 간 소비자의 기존 대출 정보를 주고 받고 대출금 입금 등 상환을 처리하는 절차를 온라인으로 중계한다.

소비자들은 대출 비교 플랫폼 앱을 통해 가장 유리한 조건의 대출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이때 기존 대출 잔액과 금리 수준뿐 아니라 중도상환수수료나 금리 변동 주기 등의 정보까지 제공받기 때문에 연간 절감되는 비용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앱을 켜서 약 15분 만에 대환대출을 마칠 수 있던 신용대출과는 달리 주담대나 전세대출 이동은 ‘원스톱 시스템’은 아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나 임대차 계약 등 검증해야 할 정보가 많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필요한 서류들을 앱(선택 시 영업점을 통해서도 가능)을 통해 제출한 뒤 심사에 2~7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가 끝나면 소비자가 대출 조건을 확정한다. 나머지 대출 실행과 근저당권 설정·말소 등도 온라인을 통해 중계하는 구조다.

신신장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주담대나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금액 규모가 신용대출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소비자가 체감하는 이자 절감 효과 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가동을 시작한 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서도 지난 15일 기준 총 6만7384건의 대출 자금이 이동했다. 규모로는 1조5849억원 수준이다.

총이자 절감액은 300억원 이상, 평균 이자 절감 폭은 약 1.5%포인트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주담대·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마칠 예정이다. 대국민 서비스는 이르면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된다.

금융위는 대출 자원의 급격한 쏠림 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환대출 취급 규모를 제한하는 등 리스크 관리 방안도 검토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연합뉴스



추석 사랑의 송편나눔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고성신)는 25일 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와 함께 ‘추석맞이 사랑의 송편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농협은 고령농업인과 취약계층 200여 세대를 직접 방문해 모싯잎 송편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한전 ‘비상경영·혁신위’ 발족...“자구노력에 특단 대책 마련”

위원장에 김동철 사장

한국전력은 25일 김동철 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비상경영·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김 사장을 위원장으로 ▲재무위기 대응 ▲조직·인사 혁신 ▲신사업·신기술 ▲미래 전력망 ▲원전·신재생 등 5개 분과를 구성해, 핵심과제를 발굴, 이행하게 된다.

또 외부 자문위원을 선임해 자문을 구할 예정이며,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혁신과제 운영·실행을 위해 지역·건설본부 직원들도 참여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 공식 발족 직후 개최된 ‘비상경영 및 경영혁신 실천 결의’ 행사에서는 ▲재무정상화 ▲신사업·신기술 주도 ▲신재생·원전사업 적극 추진 ▲업무효율화·고객서비스 개선이라는 비상경영·경영혁신의 방향성과 목표를 확인했다.

또 강한 개혁 의지를 바탕으로 특단의 추가 자구노력 발굴과 경영정상화 조기 달성을 위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후 열린 사장 주재의 현안 토론회에서는 ‘재무 위기 극복’, ‘신사업 활성화’, ‘안전경영체계 정착’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주제 발제에 이어, 열린 토론이 전개됐다.

토론에서는 신속하고 차질 없는 자구대책 이행과 국내외 신사업 부문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과 해법 등이 제시됐다.

김동철 사장은 “한전 스스로의 내부 개혁 없이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면서 “기존 자구노력에 더해 특단의 추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임직원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갖고 ‘제2의 창사’라는 각오로 혁신에 적극 동참하여 국민에게 사랑 받는 ‘글로벌 종합 에너지기업’으로 거듭나자”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순천대학교는 그린스마트팜,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우주항공·첨단소재 분야에 강조 지역기업 육성대학으로 도약’을 목표로 교육부 주관 글로벌대학30 사업에 전라남도 유일의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사학연금, PE 블라인드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브이아이파트너스 등 3곳 총 1500억원 출자 예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은 25일 ‘PE 블라인드 펀드’ 위탁운용사로 ‘브이아이파트너스’, ‘아이엘엔베스트먼트’, ‘한앤컴퍼니’ 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학연금의 국내 PEF 출자규모는 총 1500억 원 수준으로, 위탁운용사 3곳에 각 500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사학연금은 지난 7월 제안서를 접수 받아 1차 정량평가 실시 후 6개 기업을 선정했

다. 이후 선정된 운용사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거쳐, 지난 22일 대체투자위원회의 정성평가를 통해 3곳의 위탁운용사를 최종 확정했다.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은 “우수한 PEF 위탁운용사를 선정하여 투자함으로써 사학연금 기금의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안정성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기금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학연금은 지난해 PE 블라인드 펀드 위탁운용사로 스키레이크에쿼티파트너스 등 4곳을 선정해 총 4000억원을 분할 투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순천대와 ‘글로벌30’ 선정 지원 협약

AI기반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청년농업인 육성 등 공동협력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택)는 25일 국립순천대학교와 ‘글로벌대학30 선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순천대의 글로벌대학30 선정과 AI기반의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청년농업인 육성에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스마트농업 공동연구 및 농업인 교육 ▲농업기술 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공동수집 ▲연구인력·시설 등 인프라 공동이용 등이다.

박종택 본부장은 “순천대의 글로벌대학30 분지정이 전남 농업·농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남농협은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과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코스피	2495.76 (-12.37)
코스닥	839.17 (-18.18)
금리 (국고채 3년)	3.876 (0.000)
환율 (USD)	1336.50 (-0.30)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자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외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전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버들지점 062)381-1971~2
상동우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